

동영상 자료 개발 논리

교육학과 한승민

<https://youtu.be/tRkfZtVzMrA>

1. 동영상 자료 주제 선정 배경

본 동영상 자료는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에 대한 발표이다. 교육부 (2015)에서 제시한 학교 진로교육 목표의 첫 번째는 ‘긍정적 자기개념의 형성’이다. 이 목표 아래에서 중학교 진로교육 1.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영역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형성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고등학교 진로교육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노력할 수 있다.”라는 성취기준을 제시한다. 필자는 긍정적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자존감, 자신감 형성,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것 등이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자신의 약점, 결점을 수용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의 필요성을 생각했다. 긍정적 자기개념을 형성하기에 앞서, 부정적으로 왜곡된 자기개념을 재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가네의 수업의 사태

2.1. 주의 집중

영상 도입부에 발표 주제인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를 한 글자씩 제시하였다. 또한 발표자가 도입 질문으로 “나를 사랑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를 제시한 뒤, 청중은 이를 고민하며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지에 관해 청중에게 질문하고, 이유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면서 상호작용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2.2. 학습에 대한 기대감 형성

발표 내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독립하여 구성함으로써, 청중과 시청자가 향후 발표 내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학습 안내 제시

영상 중간에는 시청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는 ‘나에게 편지 쓰기’로, 직접 편지를 쓰는 장면을 촬영하여 학습자의 과제 수행을 유도하였다.

2.4. 파지와 전이

발표 마무리 단계에서는 앞선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내리며 마무리하였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 초기에 제시한 영상을 다시 제시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3. 동영상 자료 제작의 논리

3.1. 카메라의 위치

본 발표는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되었다. 한 카메라는 정면을 찍도록 하였고, 나머지 한 카메라는 발표자의 좌측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좌측에 위치한 카메라는 발표 자료와, 발표자, 청중의 모습을 모두 담을 수 있었다. 정면에 위치한 카메라에서는 청중에 의해 발표 자료가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좌측에 담긴 장면으로 영상을 구성하였다. 발표자의 위치는 파워포인트 화면 우측과 가깝게 하여 해당 내용을 직접 가리키며 설명하였다.

3.2. 화면의 구성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직접 발표 현장에 참여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질문을 던지는 화면을 구성하였다. 또한, 시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중간 중간에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뒤의 내용을 예고하는 화면을 구성하였고, 화면을 전환시켰다.

3.3. 메시지 설계

본 발표는 강의보다 강연에 가깝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하였다.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과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로 좁혀나가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집중하였다.

4. 동영상 자료 개발 경험에 대한 성찰

이번 동영상 자료 개발 경험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영상 자료가 교수자가 효과적인 교수를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이였다.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영상 자료를 통해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성찰한 점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나의 영상을 보면서 손을 앞으로 모으는 동작을 자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동적인 발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손을 펼쳤는데, 손을 펼치는 동작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말하기 속도와 관련해서는,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여 말을 하게 되어 평소보다 적절한 속도로 말을 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국립국어원(2008). 표준국어대사전.

크리스틴 네프, 서광스님, 이경옥 역(2019). 러브 유어셀프. 이너북스.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15).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제 5 판). 파주: 교육과학사.